

커뮤니케이션 이론

1.1. 이론과 현상	2
1.1.1. 현상 (phenomena).....	2
1.1.2. 이론 (theory).....	2
1.1.3. 이론 (theory).....	2
1.2. 이론의 특성	2
1.2.1. 기술 (description)	2
1.2.2. 예측 (prediction).....	2
1.2.3. 설명 (explanation)	2
1.2.4. 통제 (control).....	2
2. 이론의 기반 (철학적 접근).....	3
2.1. 간단한 예.....	3
2.1.1. Shannon 과 Weaver 의 수학적 모델.....	3
2.1.2. Merton 의 구조기능주의적 사회이론.....	3
2.1.3. Marx 의 유물사관/자본에 관한 이론.....	3
2.1.4. Berger 와 Lukemann 의 사회구성론 (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)	4
2.1.5. 유아론.....	4
2.2. 인지론적 접근 (epistemological approach).....	4
2.3. 존재론적 접근 (ontological approach)	4
2.3.1. 경험론자의 주장 (Empiricists' arguments).....	4
2.3.1.1. 주장	4
2.3.1.2. 비판	4
2.4. 방법론적 접근 (methodological approach)	5
2.5. 실용적 접근 (praxiological approach)	5
2.6. 경험주의적 접근	5
2.7. 관념주의적 접근	5
3.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요소들 [최소한 사회와 관련된 --]	6
3.1. 인간 (agents/human)	6
3.2. 사회/환경/매체 (society/structure/media environment)	6
3.3. 커뮤니케이션 (communication).....	6
4. 요소에 따른 이론의 분류 - 4 가지.....	7
4.1. Conjunctive	7
4.2. Situated	7
4.3. Attributed.....	7
4.4. Activated.....	7
5. 커뮤니케이션 이론.....	8
5.1. Conjunctive 와 Attributed 접근.....	8
5.2. Conjunctive	8
5.3. Attributed.....	8
5.4. Situated.....	8
5.5. 과학적 방법의 특성.....	8
5.5.1. Conjunctive.....	8
5.5.1.1. 예.....	8
5.5.2. Attributed	8
5.5.2.1. 예.....	9
5.5.3. Situated	9
5.5.3.1. 예.....	9
5.5.4. Activated	9
6. 과학적 방법론	10
6.1. 일관적인 설명.....	10
6.2. 명제, Constructs, 개념.....	10
6.3. Deduction/Induction.....	10
6.4. Theory	10
6.5. Hypothesis	10
6.6. Data gathering	10
6.7. Hypothesis testing.....	10
6.8. Confirming Theory	10

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과학적 방법

1.1. 이론과 현상

1.1.1. 현상 (phenomena)

- 개인의 마인드에 지각될 수 있는
- 사실 (fact), 행위 (behavior), 상태 (state), 또는 사건(event)

1.1.2. 이론 (theory)

- 위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의 틀
- 반복되는 현상 / 서로 상관없는 듯이 지각되는 현상 등을 묶어서 이해의 틀을 제시해 주고,
- 이런 현상들의 이해를 위해서 무엇을 “살펴 (관찰, observe)”볼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학문적 장치

1.1.3. 이론 (theory)

1.2. 이론의 특성

- 이론은 아래 4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.
- 기술, 예측, 설명, 제어

1.2.1. 기술 (description)

- 현상을 경험한대로 기술하는 것

1.2.2. 예측 (prediction)

- 이론을 기반으로 앞으로 일어날 현상의 전개과정을 예측하는 것

1.2.3. 설명 (explanation)

- 어떤 현상에서 그 원인 (cause)과 결과 (result), 그리고 그 둘간의 관계 (relationships)를 명확히 하여 이해를 돕는 것
- 무관계하게 보이는 (보였던) 현상들을 이론의 범주에서 공통적인 점을 발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

1.2.4. 통제 (control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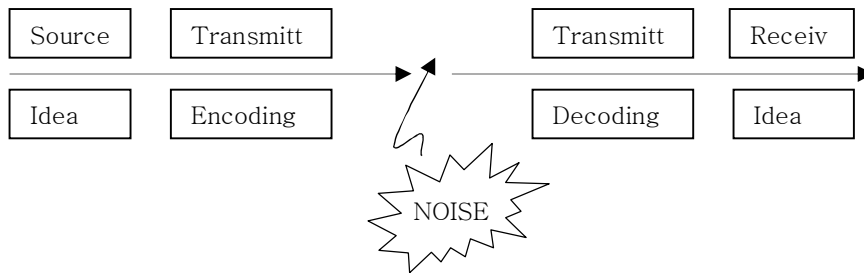
- 이해 (설명)와 예측을 기반으로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제어하는 것
- 대개의 경우, 통제는 (예기치 않은) 새로운 현상을 부르게 된다 (latent function)
- Latent function 은 머튼 (Merton)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
- Merton 은 (밑에 이야기 될) 구조기능주의적 입장의 사회이론가
 - 그는 사회제도의 Latent / Manifest (잠재적 / 현재적) 기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, (신문방송학자를 포함한) 사회학자는 보이지 않는 잠재적 기능에 대해 보다 민감해야 한다고 주장.
 - 한 편으로, Clarke 와 같은 사회학자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조직이 당면하는 “사고”는 수 많은 정교한 제어를 거친 현상 이후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 결과 (consequence)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주장을 함.

2. 이론의 기반 (철학적 접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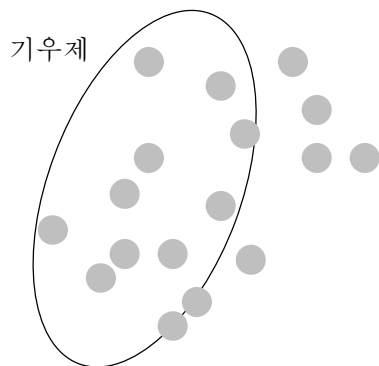
- 경험주의 (Empiricism) / 관념주의 (Idealism) 가 나누어질 수 있는 근거
- 이론 = 가치 / 정치 / 당파 중립 ?
- 현대의 이론가들은 이에 대한 부정이 강함.
- 이 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결국은 안다는 것(지식, knowledge)에 대한 학문이며, 아는 대상(존재, object)에 대한 확신에 관한 것이라는 주제를 다룸.

2.1. 간단한 예

2.1.1. Shannon 과 Weaver 의 수학적 모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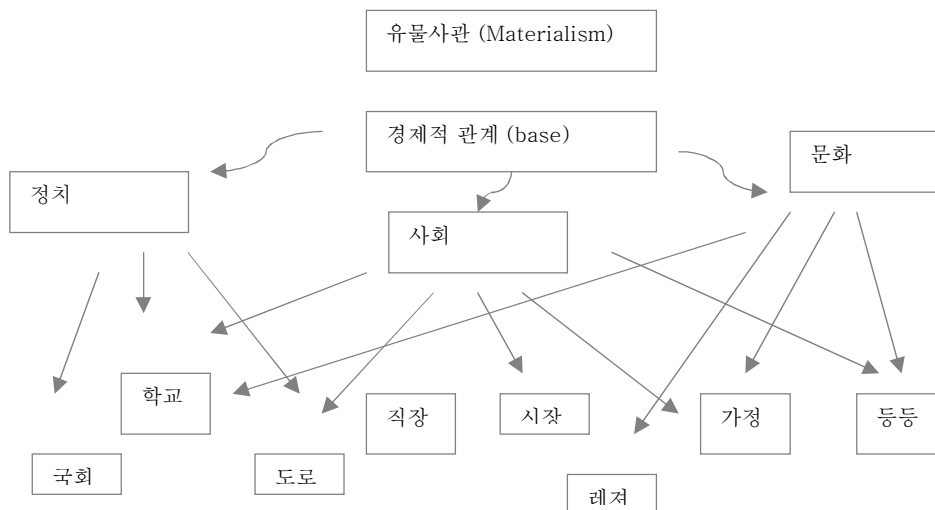


2.1.2. Merton 의 구조기능주의적 사회이론



- <http://www.was.pe.kr/merton1.htm>

2.1.3. Marx 의 유물사관/자본에 관한 이론



- <http://home.hanmir.com/~engelsmarx/MARX.htm>
- <http://www.marxists.org/korean/marx/>
- <http://www.marxists.org/> (위의 영문판: complete)

2.1.4. Berger 와 Lukemann 의 사회구성론 (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)



- - <http://www2.pfeiffer.edu/~lridener/courses/REALITY.HTML>
- - <http://www.was.pe.kr/berger1.htm>

2.1.5. 유아론...

2.2. 인지론적 접근 (epistemological approach)

- 인지 (episteme): 아는 것, 앎
- 론 (logy): 학문
- 안다는 것에 대한 학문:
- 예:
 - 이 시간,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의자는 과연 다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?
 - “의자”라고 옆의 사람이 이야기 했을 때, 내게서 생겨나는 의자라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? 그의 그것과 일치할까?
 - “의자”라는 단어에서 나의 마인드에 나타나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?
 - “의자”라는 개념을 “민주주의”이라는 개념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? 즉, 내가 알고 있는 “민주주의”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일까? 아울러, 밑의 존재론적인 질문으로, “민주주의”는 진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? 아니면, 우리 마인드에 존재하는 하나의 개념일 뿐일까?

2.3. 존재론적 접근 (ontological approach)

- 존재 (onto)
- 존재에 대한 학문
- 대개은 인지론적인 고찰과 존재론적인 고찰이 한꺼번에 이루어짐
- 예:
 -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의자는 과연 실제로 실재 (실존)하기 때문에 내게 지각이 되어지는 것일까? 아니면, 내 마음 속에 맺혀진 하나의 상 (허구)에 불과할까?
 - 내가 지각한 저 의자가 과연 이 세계에 실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?
 - “의자”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, 나의 마인드에 나타나는 의자는 모든 의자를 대표하는 그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? 아니면,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그 모든 의자의 합일까?

2.3.1. 경험론자의 주장 (Empiricists' arguments)

2.3.1.1. 주장

- 인간의 지식 (episteme)은 “경험”에서 나오는 것
- 인간의 마인드는 처음에 백지 상태 (tabula rosa)
- 이것이 오감을 이용한 경험을 통하여
- 마인드에 세계의 사물이 맺히게 됨
- 즉,
- 외부세계의 물체 (그 어떤 것) :: 경험 (감각기관) :: 마인드
- by Hobbes 그리고 J. Locke

2.3.1.2. 비판

- 위의 도식에서 물체와 경험을 통해서 얻은 마인드의 그 어떤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?
- 전통적 경험론자들의 주장은 완전일치 ::
- 그러나, 비판의 여지가 많은 점을 즉시 알 수 있음 (그렇지 않니한가?)
- 대표적인 비판자, Berkley (Not, Charles Berkely . . .)

- Locke idea, ideas \leq perception, reflection 을 따름
- 단, Berkely 의 질문은: “우리가 알 수 있는 전부가 “ideas” 라고 한다면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?”
- “esse is percipi (to be is to be perceived)”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.
- Hume 의 회의적 경험론
 - Berkely 의 질문류는 풀 수 없는 문제로서 인간이 가진 지식은 항상 회의될 수 있다는 점
 - Ideas 와 association of ideas, 두 가지의 기재로 인간은 “지식”을 추구
- 결론적으로, 이전의 경험론자들의 주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
 - (1) 마인드와 외부실체의 관계
 - (2) 마인드와 언어간의 관계 (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)

2.4. 방법론적 접근 (methodological approach)

-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?
- 위의 두가지 접근의 방향에 근거를 두게 됨

2.5. 실용적 접근 (praxiological approach)

- Not much of importance

2.6. 경험주의적 접근

- 행태심리학 (behavioral science)
- 인지심리학 (cognitive science)
- 자연과학 (물리, 생물, 화학, 등등)
- 고전 경제학 (classical economics)

2.7. 관념주의적 접근

- 칸트의 형이상학 (Idealism)
- 훗설 (Husserl)의 현상학 (phenomenology)
- 유아론적인 접근 (solipsism)

3.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요소들 [최소한 사회와 관련된 --]

3.1. 인간 (agents/human)

- 사회라 함은 곧 인간이 활동하는 영역 (space)를 의미.

3.2. 사회/환경/매체 (society/structure/media environment)

- 특히, 신문방송학, 미디어학에서 매체와 사회/환경을 따로 떼어뜨려 보기도 하며,
- 이 또한 근거가 있는 방법

3.3. 커뮤니케이션 (communication)

- When people lead their social lives, they must not not communicate with others.

4. 요소에 따른 이론의 분류 - 4 가지

4.1. Conjunctive

- 사회/환경/매체 -> 인간에 영향을 줌
- 따라서,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사회/환경/매체에 영향을 받음
- 전체 (whole), 사회 (society), 구조 (structure), 시스템 등등으로 표기
- Sui-generis : 사회/환경/매체 등에서 자가생성적인 영향력을 인정, 이것이 사회구성원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, 이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사회/경제/문화 활동을 하게 된다는 접근
- 따라서 인간은 수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가정이 불가피 (대개는)
- 예:
 - Marxism (막시즘)
 - System Theory (체제이론)
 - Functionalism (기능주의)
 - Structuralism (구조주의)
 - Structural-functionalism (구조기능주의)
 - 지식격차가설
 - 의제설정
 - 계발이론
 - 맥루한의 MM
 - 미디어 체계모니론
 - Frankfurt 학파

4.2. Situated

- 현실은 인간 (human, agents)이 사인을 이용한 상호작용으로 함으로써 “만들어 (구성되어)” 지는 것
- 전체/환경/사회 <- 인간
- 사회/전체/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상호작용 (interaction), 커뮤니케이션 (communication)을 어떻게 하며, 어떻게 이해 (understand)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
 -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(현실의 사회적 구성)
 - 틀짓기 (Goffman 류의) **
 - 사회영향 이론 (Social Influence)

** 틀짓기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것이 있음

4.3. Attributed

- 개인 (인간)에 초점
- 가정: 개인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연구가 완성되면,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전체를 알 수 있음
- 개인의 속성(attributes)에 대한 이해가 진리접근의 기반이 된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음
- 따라서 이 접근법은 간혹
- Individual methodology; reductionism 등으로 불리우고 비판을 받음
- Individual methodology: 개인을 방법으로 해서 진리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
- Reductionism: 사회에 대한 이해의 기본은 개인내면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기 때문에
- 예: 대부분의 심리학적 접근
 - 인지일관성
 - Uncertainty Reduction
 - 설득에 관련된 이론들
 - 태도형성
 - 인지정교화
 - 정보처리
 - 스키마
 - 침묵의 나선
 - 제3자 효과
 - TV 폭력물의 영향에 관한 연구

4.4. Activated

- 두 요소 (society/structure/whole :: agent/human)의 만들고 만들어지는 관계
 - 기든스의 구조화과정 이론 (Structuration Theory)
 - 폴의 변형된 구조화과정 이론 (Adaptive Structuration)
 - Barley의 구조화과정 이론
 - Rice 구조화과정 이론

5. 커뮤니케이션 이론

5.1. Conjunctive 와 Attributed 접근

- 위의 접근 방법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주
- 최근에는 달라지는 경향

5.2. Conjunctive

- 지식격차가설
- 의제설정
- 계발이론
- 맥루한의 MM
- 미디어 헤게모니론
- Frankfurt 학파의 문화산업론

5.3. Attributed

- 인지일관성
- Uncertainty Reduction
- 설득에 관련된 이론들
- 태도형성
- 인지정교화
- 정보처리
- 스키마
- 칩목의 나선
- 제 3 자 효과
- TV 폭력물의 영향에 관한 연구

5.4. Situated

-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
- Ethnomethodology
- Goffman "Framing"

5.5. 과학적 방법의 특성

5.5.1. Conjunctive

- Sui-generis
- Law
- Rule

5.5.1.1. 예

- System Theory
 -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체제로 보는 이론 (organic structure)
 - 물리학 / 생물학에서 차용
 - 체제는 그 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합보다 더 큰 것으로 체제는 항상성 (homeostasis)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함 (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).
 - 체제는 하부체제로 구성되며 이 하부체제들간의 관계 (relation)에 따라서 그 성격이 결정됨 (A system is a set of elements and their relations).
 - 하부 체제는 각기 그 기능 (function)을 가지게 됨
 - 항상성 유지라는 원칙에 따라서 구성요소 (인간, 커뮤니케이션)가 움직이게 됨
-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 이론
 - 기술결정론적 접근
 - 미디어 (communication technology)가 사람의 사고방식과 커뮤니케이션 행태의 변화를 초래함
- 구조주의 (Structuralism)
 - 언어학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던 이론 (현재는 post-structuralism, post-modernism 등으로 변환, 확대됨)
 - Levi-Strauss, Foucault, Derrida 등등
 - 언어에는 구조 (structure)가 있는데, 이 구조가 커뮤니케이션의 행태를 결정함
 - 따라서, 모든 언어를 자세히 연구하면, 동질적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음
 - 신화도 마찬가지 (Levi-Strauss 경우)

5.5.2. Attributed

- 심리학적인 접근
- 인간의 심리 (공통 분모적)에 대한 앎이 전체 (사회/구조/전체)를 알 도록하는 기반이 됨
- 기재 (인간 행동의 원칙)로서의 인간심리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주 목적
- 행동 (behavior), 지각 (perception), 인지 (cognition)등에 관한 연구
- 좀더 나아가서는 위의 것들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 (social settings)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보기도 함 (social psychology, 사회심리학)

5.5.2.1. 예

- 인지일관성
- 사물, 현상에 관한 개인의 인지 (cognition)는 일관성을 갖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이론 (:-) = ^ ^ ; ;)
- 개인의 인지에 불균형이 오면, 균형상태로 돌아오려는 커뮤니케이션 / 정보습득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됨 (법칙 (law))
- Heider, NewComb, Osgoods, Festinger 등등의 심리학계보의 학자들
- 침묵의 나선
- 노엘-노이만 (Noelle-Neuman)의 연구
- 자신이 소수계의 의견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그 의견의 개진을 주저하게 됨

5.5.3. Situated

5.5.3.1. 예

- 현실의 사회적 구성론 (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)
- 현실은 사회적 행동의 결과물이라는 이론 :-)
- 과학적 / 현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장 :-)
- 그러나, 이론의 기반을 위해 뛰어난 학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어 왔음
- 대표적으로, Husserl, Schutz, Garfinkel, Goffman 등등
- Husserl 은 철학적인 면에서 연구하였으나, 이 후
- Schutz 와 Garfinkel, Goffman 이 사회학 (커뮤니케이션학) 면에서 연구
- Geertz 라는 인류학자 또한 이 방면으로 연구 (Thick description of human life)

5.5.4. Activated

- 70년대 말 – 현재까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는 이론
- 대표적인 학자: A. Giddens (Theory of Structura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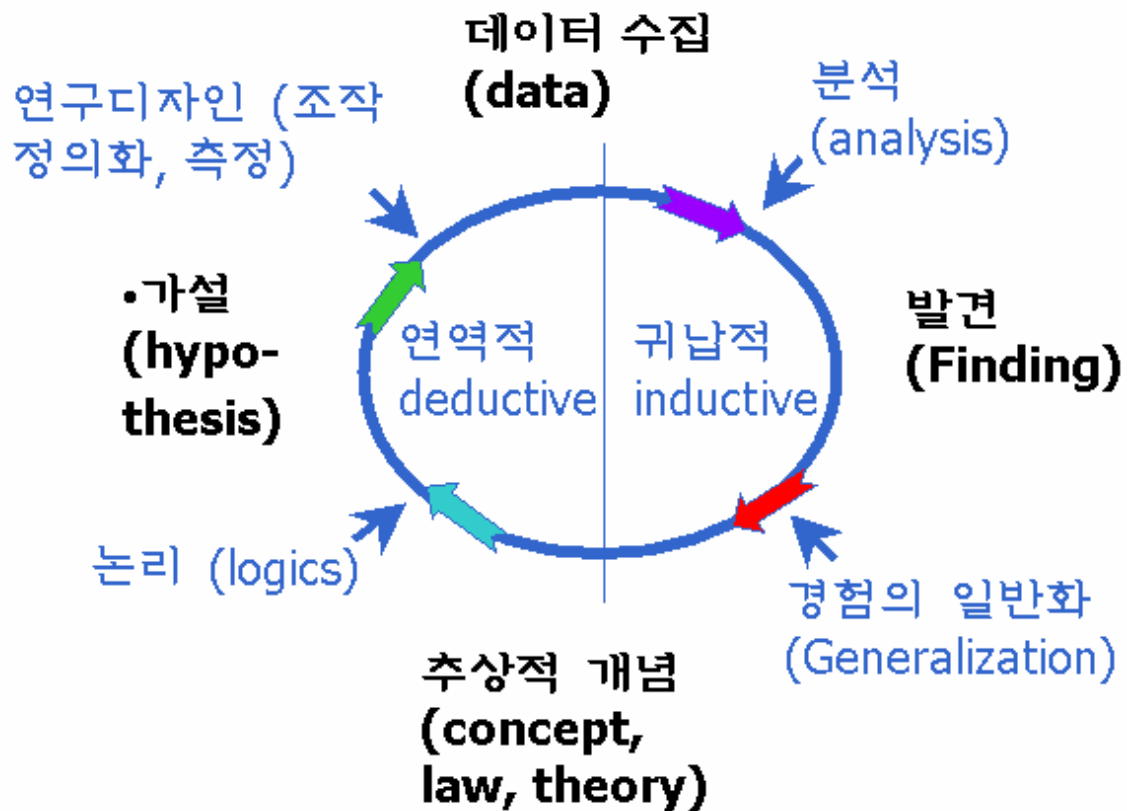
6. 과학적 방법론

6.1. 일관적인 설명

- 인식론적 / 존재론적인 기반이 앎을 위한 방법과 연결됨
- 과학적 (scientific) = 경험주의 (empiricism) / 자연과학 (natural science)
- 이에 따른 독특한 연구 방법론이 등장하게 됨

6.2. 명제, Constructs, 개념

6.3. Deduction/Induction



6.4. Theory

6.5. Hypothesis

6.6. Data gathering

6.7. Hypothesis testing

6.8. Confirming Theory

- Knowledge seeking is NOT the one-way process.